

후타쓰모리산 등산로 입구

일정 : 3.2 킬로미터

소요시간 : 1.5~2 시간 (편도)

아키타현 후지사토에 있는 후타쓰모리(1,086m)는 시라카미 산지 핵심지역과 가장 가까운 산이다. 이 등산 코스는 완충 지대(세계유산 시라카미 산지의 핵심 지역을 둘러싼 구역)를 지나 아키타현과 아오모리현의 경계에 있는 산 정상으로 통한다. 등산로 입구로 가는 길은 과거에는 임도였으며 숲을 지나 아오모리현으로 연결될 예정이었으나 1990 년 환경운동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다.

후타쓰모리라는 이름은 일본어로 ‘두 개의 숲’ 이라는 뜻으로 산의 생태계는 다양한 동식물을 지켜주고 있다. 임도변의 일부는 과거에 목재를 위해 벌목되었으나 산기슭의 구릉지대는 현재도 대부분이 수목 재배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등산 코스가 시라카미 산지의 핵심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조릿대가 무성한 너도밤나무 숲으로 변해간다. 숲속에 있는 대부분 너도밤나무는 줄기가 휘어져 있다. 어린 너도밤나무는 폭설의 무게로 인해 휘어지는데, 나무가 자랄수록 튼튼해져 눈의 무게를 견뎌내고 줄기를 곧게 뻗을 수 있게 된다. 숲속의 지면은 분단나무, 열레지, 그리고 여러 종류의 철쭉을 포함해 다양한 관목과 초본식물로 덮여있다.